

불교고고학에서 건축역사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홍병화 || 건축학 박사

국문초록

발굴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는 고고학분야에서 건축역사학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여 왔다. 하지만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현재까지 그만큼의 성과나 노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고고학에서 불교유적 조사는 이미 하나의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인접 분야인 건축역사학과 불교미술사학과 등과 연구영역이 겹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중에서 건축역사학분야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배치계획의 연구는 고고학에서도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어 두 학문 간의 협업이 특히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는 조사 및 결과 정리 과정에서 구조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과 유적의 정비와 활용 등은 건축분야에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협업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양측 모두에서 설득력 있게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두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불교유적의 발굴조사에서 건축유적의 원리와 성격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들을 정리하여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불교고고학, 건축역사학, 불교건축, 주망(柱網), 적심, 이주법(移柱法), 감주법(減柱法)

1. 서론-고고학의 현재와 그 안에서의 건축역사학의 위치

회고와 전망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전환기라는 인식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고고학의 회고와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몇몇의 글을 보면 그 배경에는 급증한 발굴조사의 횟수와 이에 따른 보고 자료의 증가를 고고학계의 공통적인 환경변화로 꼽고 있다.¹⁾

고고분야 연구의 유형을 넓게 구분해 보자면 크게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유물과 유구에 대한 연구와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건물이나 유물 등을 조사하는 연구, 그리고 전세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고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되어오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조사·연구하는 고고학 이외의 학문분야와는 공통점도 가질 수 있지만 역시 차별적이기도 하다.

최근 고고학은 앞에서 언급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구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발굴 기회는 많아져 다양한 유적들을 발굴하는 것에 비해 고고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부족하다보니 인접 학문분야에서 연구자들을 확보해서 자연스럽게 전공분야가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은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고고학이 문화재의 전 분야를 포괄하다시피 하는 외연을 가졌다고 할 만큼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 건축역사학은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고고학과 친연성이 높은 학문으로 볼 수 있다.

건축역사학은 현존하는 역사건축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자료들이 건축역사학 연구에 공헌하는 점도

1) 최성락,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 『역사문화학회』 7(2), 2007, pp. 273-306.
이희준, 「연구 주제 다변화의 모색: 2010~2011년 역사고고학 연구의 동향」 『역사학보』 제215집, 2012, pp. 371-396.

크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은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건축역사학을 고고학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에는 정서적으로 쉽게 동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불교유적을 조사하는 경우 고고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층서적 층위해석을 바탕으로 건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공간의 인식과 활용을 중시하는 공간론적 입장, 또는 구조체의 과학적 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공학적 입장 간에는 유적에 대한 해석 차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극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현실적 한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급격하게 늘어난 발굴조사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기반으로 같은 대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겪어야 하는 것은 학문적 견해의 풍부함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이 아닐까 싶다.

유적지 발굴조사에 있어서 건축역사학적인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안다.²⁾ 하지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현재의 학제와 학계의 풍토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건물지 발굴조사의 어느 부분에서 건축역사학의 성과와 방법론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조사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조사의 효율성이란 역사건축물의 건축계획과 구조를 이해하면 발굴조사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으며, 발굴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결과의 정리에 있어서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2) 장경호,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3: 건물지 조사방법과 그 해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당시의 건축수준을 이해하면 결여된 건축의 부분에서 사라진 건축을 상상하는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건축유구의 조사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건물지의 발굴조사에서 역사 건축물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한 것이 된다. 다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을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와 정리에 있어서 유구의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그 건물에 대한 건축형식과 구조, 기능과 위상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기록된 역사가 없는 시기의 역사를 채워주는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문헌사학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충하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II. 전통목조건축의 원리

우리나라의 역사건축물이란 대부분 목조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조건축은 가구식 구조에 의해 건축되며, 당시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건축계획으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식 구조란 건물을 구성하는 골조의 구성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위 건물의 평면과 단면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건축계획이란 공간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평면의 형태나 혹은 각각의 건물이 만들어 내는 외부공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의 사용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구조의 기본적 원리

목가구식은 동아시아 건축의 구조적 특징을 통칭하는 것으로 부재간의 결구를 통해 절점을 형성하여 건물을 유지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構法은 수혈주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중에는 기와처럼 무거운 건축 재료가 올라가도 될 만큼 내구성이 강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보편적 발전법칙이라 할 수 있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목조건축의 발전을 본다면 수혈주거에서 기반을 높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발전 단계와 각 단계에 따른 경과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은 분명히 발전하였으며,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크고 더 높은 건축물을 짓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의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면 끊어져 이어지지 않는 건축역사적 맥락도 연결할 수 있고, 남은 흔적만을 통해서도 사라진 건축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유허지를 조사하는 것은 충분한 건축적 지식을 기본으로, 조사과정마다 부단히 노력하면 조사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며 선불리 예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 없이 건축의 유허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이때 충분한 지식이란 굳이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다양하게 전해지는 사료들을 통해 얻어지는 건축역사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건축은 구조적 질서에 의해 구성되는 입체적 조형물이다. 특히 목재를 다듬어 규칙적이고 입체적인 골격을 만들고 여기에 벽을 구성하여 내외를 구분하는 것이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기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섰던 터에는 자유분방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 필요성에 기초하는 규칙적인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건축물이 사라진 유허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건물의 몸통은 크게 하중을 수직으로 전달하는 기둥과 수평으로 전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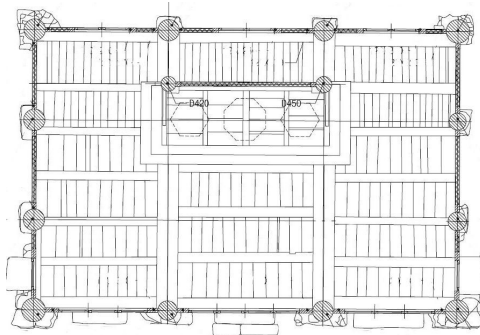
는 보로 구성된다. 이렇게 기둥과 보는 수직과 수평 부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 양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 하나의 틀(門)을 구성하는 것이 건물의 기본 골격 단위가 된다. 이 틀을 보가 평행하도록 나란히 세워 도로로 연결하면 회랑과 같은 평면이 긴 건물이 되는 것이고, 보가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세워 그 위에 서까래를 걸면 금당과 같은 넓은 평면의 건물이 되는 것이다.

결국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 평면을 하고 있는 건물도 기본적인 구조단위로 나누기 시작한다면 몇 가지 요소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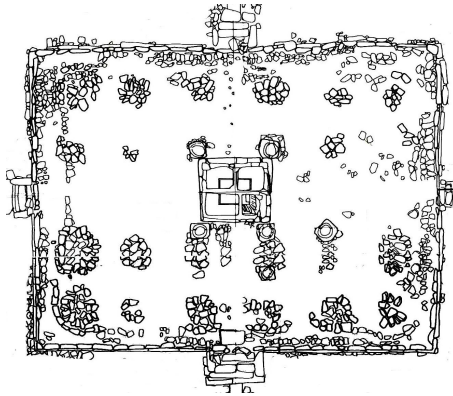
1) 평면의 의해

① 柱網

바둑판 모양의 기둥배열에서 기둥을 생략하거나 간격을 벌리는 수법을 각각 正置法에 減柱法과 移柱法이라고 한다.(그림 1) 이주법과 감주법은 그냥 기둥의 위치를 옮기거나 없앨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보를 사용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기둥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여도 지붕구조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수법인 것이다.



부안 개암사 대웅전



보령 성주사지 금당터

그림 1. 이주법과 감주법의 건물(상)과 정치법의 건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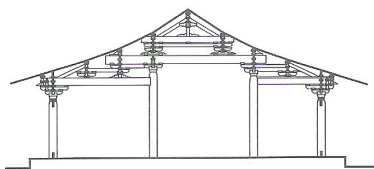
발굴조사의 과정에서 기둥자리인 적심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건물을 발견하는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건물의 내부까지 기둥을 규칙적으로 세우면 구조적으로는 안정된 건물을 이룰 수 있지만, 공간 활용이 아주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보를 사용한 기둥의 생략과 이동이다. 기둥과 기둥을 보로 이어 공간을 구성하던 것이 기둥 하나를 건너지를 정도의 긴 보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간 기둥을 생략하는 방식이 감주법이고, 보 길이 안에서 기둥 위치를 옮기는 것이 이주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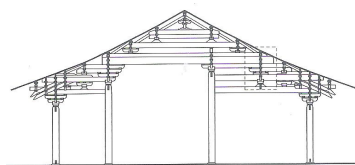
이처럼 감주법과 이주법은 보의 사용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법이며 기둥의 이동 방향은 보의 방향과 일치한다. 만약 발굴조사과정에서 이주법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보가 놓이는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역시 건물의 정면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를 이용하여 기둥을 생략하거나 이동하는 감주법이나 이주법 이외에도 주방의 간격을 서로 다르게 배열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퇴칸을 사용하여

공간을 확장시킨 건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배치처럼 內柱(내부의 기둥, 평주보다 길어 고주라고 함) 사이를 벌려 건물의 중앙부에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부에 중심공간을 구축하고 중심 공간의 기둥 사이에 보를 걸고, 이 중심공간 앞뒤로 퇴칸을 구성해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중국 하북성 보저현 광제사 삼대사전
(1024, 윤재신, 『중국 목조건축의 구조』)



중국 요녕성 의현 봉국사 대전
(1020, 윤재신 『중국 목조건축의 구조』)

그림 2. 전후면의 퇴칸이 서로 다른 건축물

이러한 방법은 건물을 관통하는 긴 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내부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형 내부공간이 필요한 건물에서 자주 사용되던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지만 중국의 광제사 삼대사전, 봉국사 대전, 보국사 대전 등의 경우처럼 본체에 앞뒤로 퇴칸을 설치하였지만 서로 퇴칸의 폭이 다르다.(그림 2) 이럴 경우 발굴 조사과정에서 기단선을 찾지 못한다면 한 건물의 평면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주방의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건물을 이해하려한다면 혼동을 가질 수 있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 말고도 이주법의 방향이 보방향인 전후면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융흥사 전륜장전처럼 보와 직교하는 방향인 좌우로 움직인 사례도 찾을 수 있다.(그림 3) 이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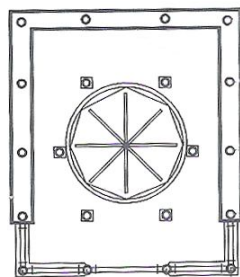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하북성 정정헌
융흥사 전륜장전(12c, 윤재신 『중국 목조건축의 구조』)

붕가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기둥이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보에 직교하는 횡부재(충량과 같은)를 지지하는 기둥이 이 횡부재가 설치된 좌우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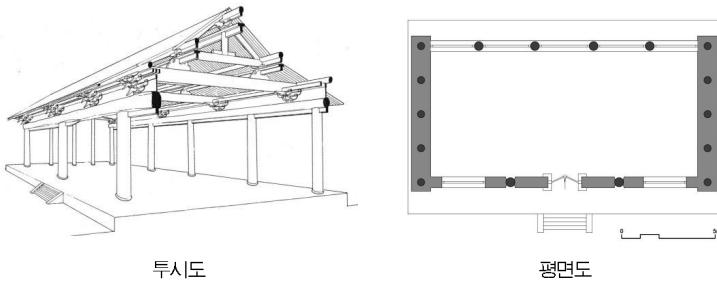


그림 4. 대액을 사용한 중국 섬서성 한성시 우왕묘 현전(서동천 석사논문)

이외에도 元代의 한성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大額이라는 부재를 사용하여 전면열의 기둥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³⁾ 이 방법은 후면과 다르게 전면 기둥 위에 수평으로 놓인 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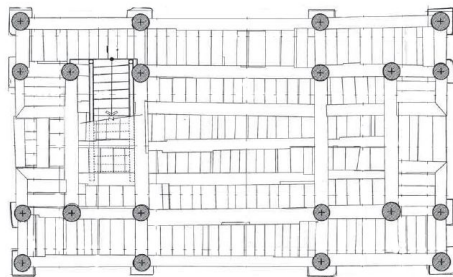


그림 5. 풍납문 하층평면(실측보고서)

큰 부재(大額)를 사용하여 기둥의 위치를 움직이는 수법이다. 이것은 전면과 후면의 전체 폭은 같지만 전면은 대액을 사용하여 기둥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 전면이 후면보다 칸이 줄어 개방감이 있다.(그림 4)

우리나라에서는 대액이라는 부재를 사용한 사례는 찾을 수 없지만 전주

3) 서동천, 중국 원대 목조건축의 구조와 결구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논문, 2006.

풍남문에서처럼 퇴보에 연결된 하층 전후면 평주를 생략한 감주법을 발견할 수 있다. 육축(陸築)에 구성되는 문루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러한 수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이다.(그림 5)

② 모서리칸과 지붕

큰 공간을 구성하는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내부의 고주가 본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퇴칸을 두르는 방식으로 공간이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모서리칸이 정방형의 평면을 하게 되고 본체의 모서리기둥인 내주와 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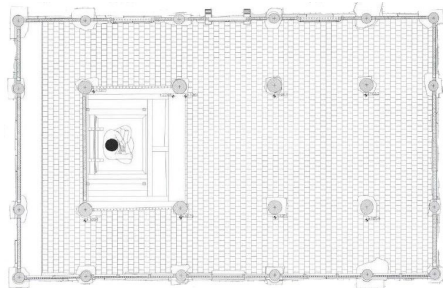


그림 6. 모서리칸이 정방형으로 내주가 추녀를 고정하는 경우(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보고서)

의 모서리기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녀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6)

추녀는 전면과 측면의 처마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모서리 처마를 정확하게 양분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래된 건물일 경우 추녀가 설치된 건물의 모서리칸이 정방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추녀 뒤부리를 고정하는데 내주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주가 있는 건물일 경우 이 방법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건물을 보면 추녀의 설치여부와 모서리칸의 형태가 일정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 또한 보로 대표되는 지붕구조의 발달이 전제되어 있는데, 지붕구조가 발달하면서 추녀의 설치에 내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건물이 조선후기 이후의 건물이기 때문에 조선후기 건물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충량과 외기도리를 사용하여 추녀를 고정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충량과 외기도리가 널리 사용되면서 내주의 필요성도 없어지고 내주가 있더라도 기둥의 위치와 상관없이 추녀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모서리칸의 형태를 보고 지붕형태를 추정하려면 처마 내 민길이가 전면과 측면이 같은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맞배집에서도 공교롭게 전면처마와 측면으로 돌출된 지붕의 길이가 같은 수 있어 이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③ 平柱(둘레 기둥)

가구식 건축의 몸체에서 하중 흐름은 기둥이 담당한다. 특히 내주에 비해 평주가 담당하는 하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귀기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을 살펴보면 실제 모서리 기둥 굵기가 다른 평주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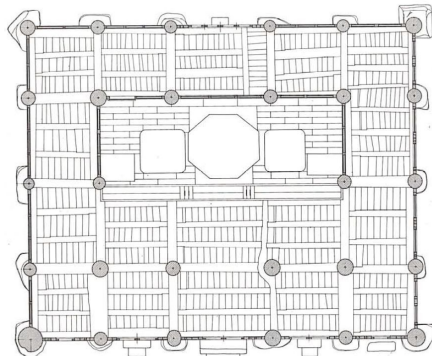


그림 7. 모서리 초석의 큰 경우
(김제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

굵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서리 초석이 다른 초석에 비해 더 굵다는 식의 이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평주와 내주의 굵기 차이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평주 중에는 귀기둥 굵기가 가장 굵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기둥의 구조적인 성능 차이가 있다는 인식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서 초석이나 적심이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달랐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잘 다듬은 주좌가 있는 초석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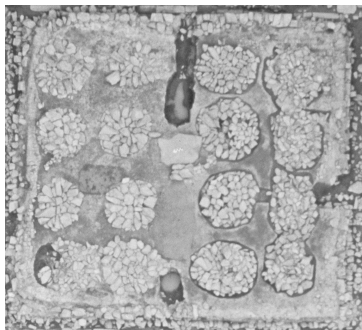


그림 8. 군위 인각사 극락전 적심(불교문화 재연구소)

라면 모를까 자연석을 사용한 초석에는 기둥의 굵기 따라 초석의 크기를 다르게 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귀기둥일 경우 다른 기둥에 비해 큰 초석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보이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단면과 평행하게 놓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그림 7)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적심의 크기를 초석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을 가능성은 더 더욱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평주의 구조적 역할이 내주에 비해 크고 기단과 인접한 위치에서 하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단과의 관계도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평주의 적심을 내주에 비해 크고 깊게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이전의 주요 전각 터를 발굴하다 보면 대체로 적심이 건물지의 전체를 모두 채우다시피 조성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귀기둥을 포함한 평주의 적심이 내주의 적심에 비해 좀 더 큰 규모로 조성된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그림 8)

하지만 이러한 규칙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역시 초석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특히 적심은 노출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직 구조적 이유에서만 만들어 지기 때문에 형태나 크기가 적절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심의 성격상 정교함 보다는 시공상의 편의와 습관에 따른 일률적인 크기 및 형태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충분한 크기의 적심은 전체 건물 무게에 비해 단위면적당 필요한 지내력보다 과도하게 크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렇게 적심을 크

고 깊게 만드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동결심도 이하에서 적심을 구성해야 안전하다는 점과, 기단의 구축과정에서 기단토를 되파고 적심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굴토 깊이에 따른 적절한 휴식각(터파기 경사각)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④ 중층건축의 주망

중층건축이란 두 개 이상의 지붕을 가진 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층건축으로 분류하는 건축형식의 주망을 보면 단층건축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층건축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체감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편으로 고주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평주의 위치가 안으로 물러서는 방식이다.⁴⁾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모서리 부분으로 상층의 모서리기둥을 세우는데 필요한 수법이 하층 주망을 구성하는데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층건축의 주망과는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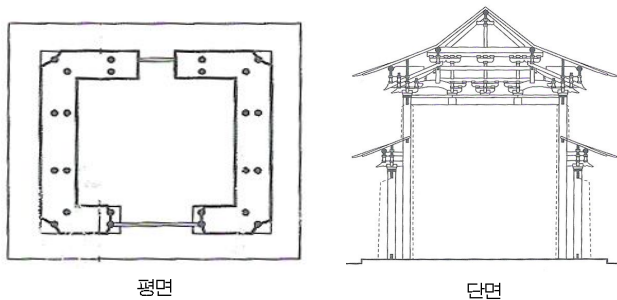


그림 9. 영정주법을 사용하는 중국 복건성 남평시 자운각(윤재신 『중국 목조건축의 구조』)

4) 소위 平坐라고 알려진 방식은 층과 층 사이에 한 층에 가까운 暗層을 설치하는 방법이 중국에서는 더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평좌방식을 사용한 중층은 없다. 평좌는 상하층의 연결되는 고주가 없이 평좌라는 층사이의 기단역할을 하는 부분을 두고 있어 체감이 작고 각 층이 분절되어 있는 방식이다.

특히 초석이 중복된
것 같거나 문화층이
교란되었다고 착각할
만한 주망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법주사
대웅보전이나 창덕궁
인정전과 같은 경우
격자의 일반적인 주망
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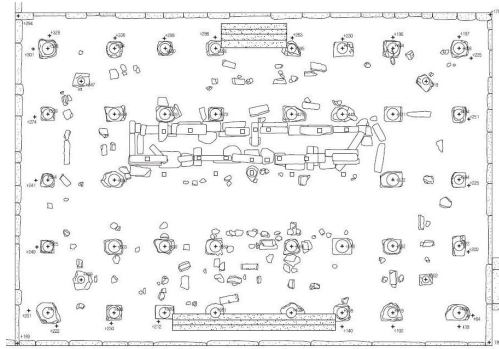


그림 10. 주망이 일치하지 않는 초석의 배치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수리보고서)

초석 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없다면 분명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중국의 자운각(1306)을 보면 모든 평주와 고주가 앞뒤로 붙어 있는 것 같은 구조로 중층건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그림 9)

중층건축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층 모서리 기둥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초석으로 하층이 직접 전달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중국의 자운각과 같이 초석을 앞뒤로 가깝게 붙이는 방식이라면 적심을 각각 구성했다기보다는 긴 적심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문루인 승례문, 홍인문, 광화문과 같은 궁궐의 문루와 근정전, 인정전과 같은 궁궐의 정전에서 사용되었고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법주사 대웅보전의 경우도 있다.⁵⁾(그림 10) 중국의

5) 이은수, 「조선시대 중층목조건축의 전각부 가구법에 관한 연구 -반칸물림의 네가지 형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9.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법주사 대웅보전은 앞선 연구에서 귀잡이보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평면에서 구조적 역할을 하는 보조기둥과 초석이 모서리칸 가운데에 있어 평면만을 본다면 마치 귀고주형식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하였다.

〈영조법식〉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영정주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중층건축이 많이 지어지던 고대에서 중세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평면만을 조사한다면 문화층의 교란으로 인식하거나 교란이 없을 경우 알 수 없는 주망을 보이는 건물이라고 해석해버릴 것이다.

⑤ 경사지형과 기둥자리

산중에 사찰을 짓는 전통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선종의 유행 등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다. 산중에 사찰을 짓게 되면 지형차를 극복하거나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여건을 건축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축대를 쌓거나 삭토를 하는 것이다.



원주 화암사 우화루



영주 부석사 인양루

그림 11. 지계형 문루

하지만 이처럼 대형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평지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는 전면은 중층이고 후면은 단층인 地階形 건축을 구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면에서 볼 때는 미당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형식이다.

화암사 우화루처럼 전면은 중층이면서 후면은 단층인 건물을 보면 축대를 중심으로 상하의 초석을 한 번에 파악하지 않으면 건물을 이해할 수 없

게 된다. 앞마당에서 주당을 파악하면 3×2칸의 건물로 파악되지만 전면에서 보면 4칸의 건물로 판단할 수 있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건물인 것이다.

이러한 지계형 건축은 화암사 우화루처럼 상층에 중심이 있는 건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석사 안양루처럼 하층에 중심이 있는 건물도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그림 11)

⑥ 내주 위치의 변화

보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내주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수법을 이주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주를 보방향으로 물려 건물의 중앙에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불단과 같이 건물의 중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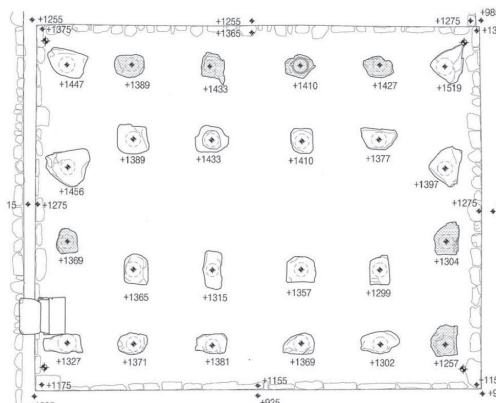


그림 12. 내주의 위치를 조절하여 공간을 확보한 사례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수리보고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주를 뒤쪽으로 물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측면 3칸의 건물에서 대들보 없이 맞보로 처리하고 중앙에 하나의 내주를 세워 기둥 수를 줄이는 것은 내주 위에서 보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주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와 기둥의 위치를 조절하여 내부공간을 확장하는 수법이다. 이외에도 측면이 3칸일 경우 두 개의 내주를 세워 3칸으로 조절

하면서 내부공간을 넓게 활용한 사례도 있다.(그림 12) 이 방법은 보를 사용하여 기둥을 옮기거나 생략하지는 않았지만 보의 길이와 수를 조절하여 측면 평주보다 내주의 수를 줄이거나 위치를 움직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이주법과 감주법은 아니지만 역시 내주의 위치가 격자형 주망은 아니다. 이러한 수법은 건물의 중앙부에서 기둥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고주를 이용해 내부에 기둥을 최소화하여 넓은 내부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이주법과 감주법의 장점과 마찬가지로이다.

귀신사 대적광전과 같이 주불전에 사용된 사례도 찾을 수 있지만 주로 갑사 정문과 같이 문루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내부공간의 활용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문루의 하층에서 사용된 용례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주망도 方眼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과정에서 하나의 평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 단면의 이해

고고학에서 토층 단면이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문화층 축적이 層序的이라서 상대 편년이 층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기초부의 단면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하중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시공 순서이다. 하중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부의 단면 조사를 통해 기초 구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첩된 행위의 선후관계를 통해 시공순서를 알 수 있다.

① 기초부의 단면

기둥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결국 건물을 안전하게 세우는 기본적인 조치인 것이다. 초석 밑에 구성되는 적심의 구조적 역할은 크게 두 종류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둥의 굽기보다 넓은 초석을 놓고 초석보다 넓은 적심을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건물의 하중을 더 분산시켜 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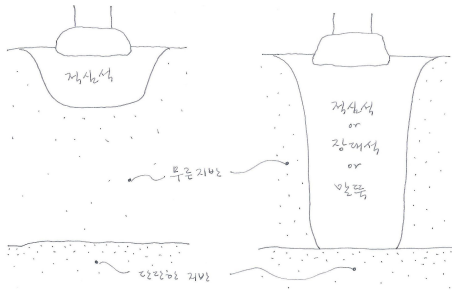


그림 13.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약 지반을 걷어내고 단단한 지반까지 직접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地中기둥(적심석 지정, 장대석 지정, 말뚝 지정과 같이)을 구성하여 침하를 방지하는 것

이다.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앞의 것은 마찰말뚝이고 뒤의 것은 직접 말뚝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3)

마찰말뚝의 원리는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을 줄여 침하를 방지하는 수법으로 비교적 넓은 초석을 쓴다거나 넓은 적심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는 진흙성분이 많은 습윤토양에서는 나뭇가지 등을 섞어 넣어 습윤한 토양을 하나로 고정하여 마찰력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 방법도 여기에 속한다.

직접말뚝 중 나무말뚝은 연약지반을 통과하여 단단한 지반에 이르도록 깊게 박아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장대석을 사용하거나 잡석을 사용하여 단단한 지반까지 깊은 적심을 구성하는 것도 직접말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습지와 같은 연약지반에 많은 수의 말뚝을 박아 지반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말뚝을 사용한다고 해도 직접 말뚝은 아니다. 이외에도 초석 밑에 작지만 많은 수의 말뚝을 박아 수직하중에 의해 토양이 밀려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이러한 지반강화조치들은 모두 건물의 침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초석은 지면에서 기둥을 띄워 방습의 효과를 보는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면에 대한 기둥의 전단력(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② 기단부의 단면

기단은 건물을 높여 채광과 통풍, 방습의 효과를 높이고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구성한다. 기단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 이외에도 지면이 융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기초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융기한 기초부와 이를 감싸고 있는 마감재가 기단인 것이다.

평지에 있는 고대사찰의 기단과 중세이후 경사지에 들어선 사찰의 기단은 구성방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평지에 조성되던 건물지의 경우 지면을 파내려가서 단단한 지반부터 기단토를 다져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경사지에 기단을 구성하는 경우 위쪽을 깎아 내어 아래쪽에 축대를 쌓아가며 다져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노동력의 차에 따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지형상 발생하는 기술적 차이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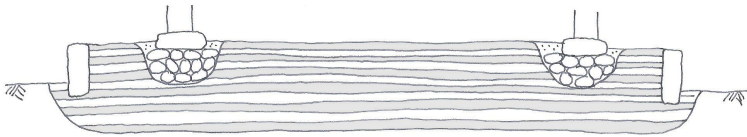


그림 14. 판상형 다짐 기단토와 적김석 기초

일반적으로 기단 조성에 사용되는 흙은 다짐성이 좋은 흙을 사용하고 기단토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잡석 등을 섞어 다지는 경우도 있다. 기단 전체를 다져 올린 경우 온통기초인 방석기초이지만 다시 여기에 기둥자리를 되파서 적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복합기초로 볼 수 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주로 평지에 조성된 고대가람의 기단은 기단토를 板狀形으로 흙을 다져올려 구성하기 때문에 기단토를 구축한 다음 기단면석을 붙이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석이 구조재이기 보다는 마감재 성격이 강하다.(그림 14) 하지만 경사지에 조성되는 기단인 경우 기단을 쌓아 올리면서 성토하기 때문에 판상형의 다짐층도 정연하지

않을 뿐더러 면석 뒤에
뒤채움이 많아 면석이
마감재이면서도 구조재
의 성격도 크다고 할 수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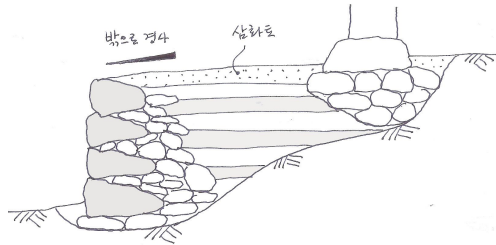


그림 15. 경사지 기단 추정 단면

기단은 필연적으로踏
壓이 발생하고 빗물도

스며들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하게 다진다고 해도 투수로 인한 침하의 위험성
이 항상 존재한다. 빗물이 스몄다가 빠지면서 생기는 공극이 답압에 의해 침
하되고 다시 물이 스몄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기단토의 유동성은 점점 커
지고 이로 인해 기단토가 옆으로 밀려 면석이 배부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단 윗면은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밀실한 다짐이 필요한데 이
것은 그냥 흙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다짐성이 좋고 경화되는 성질이 있는
강회를 사용한다. 다만 중세이후에는 이런 다짐은 삼화토(백토+진흙+강회)
를 사용하지만, 고대의 경우 강회를 사용하여 기단을 마감하였는지 아직까지
의 조사성과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다지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기단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빗물 배수를 쉽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다 해도 결국 기단토는 다양한 이유
에 의해 침하되고 결국 기단은 배가 부른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심을 크고 깊게 구성하고 기단 면석을 두껍고 밀리지
않게 만들면서 뒤채움을 충분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성인 것이다.

2. 배치계획의 기본적 원리

불교건축에서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불교리는 종교적 상징
과 동양 목조건축의 일반적 특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보편적 원리

불교건축은 고대사회의 대표적인 권위건축 중에 하나로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권위건축의 배치는 보통 가장 중요한 전각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 위계가 맞는 건축을 일정한 질서로 배치한다. 이러한 배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기본적 배치질서인 門堂制와 左右均制(대칭)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당제란 지금도 사당 건축에서 지켜지는 기본적인 원리로 문을 통해 본당으로 들어가고 주변은 담장이 둘러지는 형식이다.(그림 16)

중국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유교와 도교라는 고등종교가 있었는데, 이중 유교는 古禮일수록 善으로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축일수록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고례란 동아



그림 16.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사당(문화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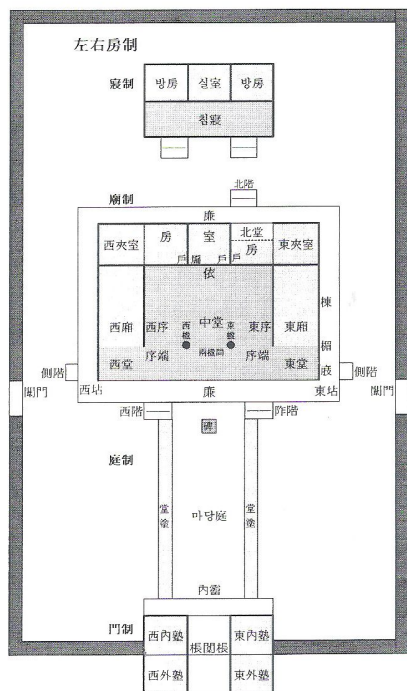


그림 17. 묘침제의 배치원리(정기철 박사논문)

시아의 목조건축이라는 특수성 아래 형성된 四合院이라는 전통이다. 사합원이란 마당을 공유하는 건축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위쪽에 가장 권위가 높은 본당이 들어서는 방식이다. 이 사합원은 단순한 문당제를 기본으로 주변에 건물이 부가되면서 복잡한 군체건축으로 변화한 것인데, 불교건축 또한 사합원이라는 틀 안에 수용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것을 기반으로 외래의 것을 수용하는 문화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중국이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었다.

또한 문당제의 단순함이 사합원의 다양함으로 변화하면서 일관된 정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진 원리가 바로 좌우균제의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주례고공기〉등과 같이 조영의 원리를 설명하는 문헌들에서 ‘전후의 차별과 좌우의 동일시’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앞쪽보다 뒤쪽의 위계를 높게 보고, 좌우는 같게 하는 원리인 것이다. 물론 엄격히 구분하자면 좌와 우도 차이를 두지만 그 차이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에서 논의되어 온 墓寢制의 배치원칙과 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권위건축의 일반적 배치원리는 건축은 달라도 서로 간에 공유하는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그림 17)

2) 불교적 원리

우리나라 초기 사원의 배치계획을 보면 탑을 중요시하여 가람의 중앙에 세운다는 사실과 주불전 역할을 하는 금당과 법을 설하는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고구려지역의 3금당 형식과 팔각평면의 불탑 등은 비슷한 시기 백제

6)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 박사논문, 1999, pp. 116-128. 중국의 종묘제는 周代에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廟寢制와 後漢 이후에 형성된 同堂異室制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신라에 비해 위낙 차이가 큰 배치계획이라서 눈길을 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신앙의 형태가 다르거나 중요시하는 의례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이지 불교 자체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고대가람의 특징은 이후로도 한동안 지켜지며 불탑, 주불전, 강당의 핵심적 요소는 사찰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인식되었다. 선종의 수입 이래 청규(淸規)의 원리가 적용되는 가람이 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불전과 법당의 앞뒤 배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현존하는 사찰을 살펴보면 이러한 배치 전통은 회암사 이후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새로운 형식의 사찰들은 조선시대에 새롭게 중건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배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주로 산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형성있는 배치형식보다는 지형에 맞는 배치가 더 일반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고대가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배치형식은 점점 사라지고 지형에 맞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찰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고대가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찰이 전형적인 배치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구례 화엄사의 경우 현재의 배치는 적어도 9세기경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바탕으로 중심사역이 형성된 사찰이지만 강당과 금당의 전후배치라는 전형적인 배치와는 분명 거리가 있고, 안동 봉정사도 탑과 극락전을 통해 적어도 고려중기 이전에 형성된 배치형식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찰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전형적인 배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당과 강당의 관계는 古來로부터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건축적으로 항상 일관되게 표현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전후배치의 전통이 보편적이라는 점에는 의심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선종이래 우리나라 불교의 또 다른 특징은 先師[주제를 숭앙하는 공간인

上院의 확대이다.⁷⁾ 선종은 師資相承의 전통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당연히 법을 전해주는 스승을 부처님과 같은 수준으로 숭앙하고 추모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으며, 이것을 건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주로 先師는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기 때문에 상원은 법을 설하는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강당(법당)의 주변에 선사의 거처나 선사가 손님을 맞이하며 차를 마시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선종을 수용했다고 알려진 사찰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특히 선종은 차분하면서 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상원에 포함되도록 水邊공간을 만든다거나 다양한 관상용 수목을 식재해서 외부공간을 꾸미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선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선사를 중심으로 법을 전하는 강설이 이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물론, 선종과 쌍벽을 이루던 화엄종 사찰에서도 이와 같은 구성요소와 배치 특징이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찰은 화엄종의 불국사가 고려 초기에는 유가종 소속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석사와 같이 특별한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종파를 줄곧 고수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한 교리를 반영한 배치를 고수하는 사찰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특별한 종파적 배치가 뚜렷한 사찰들이 많았다기보다는 종파를 막론하고 시대적 보편성이 강한 건축요소와 배치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파 차이를 건축계획을 통해 표현하였다기보다는 전각에 종파나 교리를 상징하는 像을 봉안하고 관련 의례나 교리를 강설하는 식의 내용적 변화를 통해 종파적 변화를 수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7) 이승연,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pp. 14-18. 여기서 상원이란 주지와 연관있는 건축요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상원이라고 하였다.

점은 다불전의 전통 또는 다양한 院으로 영역이 구분된다는 고려시대 사찰의 특징과도 통한다고 생각된다.⁸⁾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가 되어 배치에서도 통불교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더욱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가 간화선 전통을 중요시하며 禪을 내용적으로는 더욱 강화하였지만 이것을 건축을 통해 구현하는 노력이 충분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 불교의 상황이 생존을 위한 생활불교였다거나, 억불에 의해 위축된 시기였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보다는 간화선이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수행 공간과 생활공간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불교건축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었으면서도 조선 초에 중수된 회암사의 정청과 좌우방장의 경우나, 송광사의 설법전, 하사당, 국사전, 조사당과 같은 경우를 조선 후기 다른 사찰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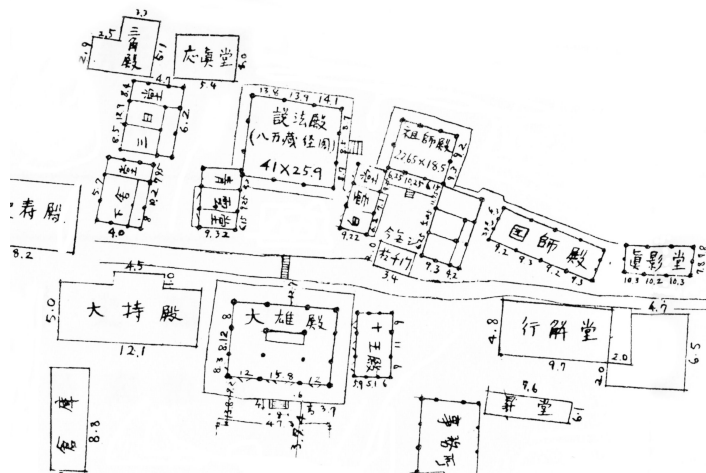


그림 18. 일제강점기 송광사 배치도 중 설법전 중심영역(후지시마 『한국건축사론』)

8)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8.

고대 사찰일수록 정형성이 뛰어나고 고려시대 이후에 지어진 사찰일수록 정형성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일반적인 경향을 지적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에는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려후기에 지어진 사찰, 혹은 조선 초기에 지어진 사찰에서도 전면에 長廊 정도는 남아서 그때까지도 가람배치의 특징 중에 일부가 古代에서 기인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조영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

개괄하듯 살펴보면 사찰건축에서 회랑의 소멸 순서는 ‘후면-측면-전면’ 순으로 없어졌다고 밝혀놓은 연구가 있었다.⁹⁾ 廊이 소멸된 이유에 대해서는 요사인 생활공간으로 변화하였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찰의 정형성을 가늠하는 회랑의 해체에 대한 단서는 어느 정도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찰 배치형식의 정형성이 약해지는 고려시대 이후에 창건된 사찰의 경우 선종의 유행, 풍수지리사상 등의 이유로 사찰이 산중에 들어서게 되어 입지가 협소하게 된 것이 정형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多불전의 경향에 의해 작은 규모의 院들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불교의 대중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이 고등종교인 불교를 독점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결국은 대중에게 개방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이 사찰의 영건과 운영에 참여하는 변화는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신도가 사찰을 찾게 되고, 좀 더 많은 곳에 사찰이 세워지면서 국가가 주도하던 권위적 사찰보다는 정형성은 떨어지더라도 변화한 현실

9) 이정국, 「고려시대 사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1997, 139-145.

에 맞는 사찰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종교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는 불교건축의 특징으로 사찰이 실용적이면서도 서민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II. 결론-불교고고학을 위한 건축역사학

불교고고학 혹은 불교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불교고고학과 인접한 학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불교고고학이란 전혀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관련 학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불교라는 공통점으로 묶어세운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 불교고고학과 건축역사학의 관계는 결코 맞비교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건축역사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발굴조사이기 때문에 건축역사학은 불교고고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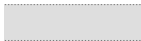
이렇듯 현재의 수준에서는 불교고고학에 대한 정의보다는 불교고고학과 기존의 학문분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문간 공동의 연구주제를 상정하고 부단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실제 불교유적을 조사하다보면 건축역사학을 포함하여 연관성이 큰 인접 학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느끼는 만큼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하지 않은 것은 불교고고학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학문의 실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에서도 불교고고학에서 건축역사학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에 호응하는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건축역사학의 자체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불교고고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건축역사학이 인접학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큼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불교고고학에서 건축역사학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 건축역사학의 현재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한계가 있어 건축역사학의 진전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건축역사학에서 파편적으로 연구되어온 목구조의 기본적 이해와 기술 중에 발굴조사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랄 뿐이다.



1. . 「 」 『 』 7(2). 2007.
2. . 「 :2010~2011 」 『 』
215 .
3. . 『 3: 』
. 2007.
4. . 「17 ‘ ’ 」 . 1999.
5. . 「 ~ 」
2010.
6. . 「 」 . 1988.
7. . 「 - -」
. 1997.

Abstract

A Need and Possibility of Construction History Study in Buddhism Archaeology

Byeonghwa Hong || PhD. in Architecture

In the archaeology field where the excavation investigation is used mostly, the need for construction history study has been often mentioned. Although its need is agreed, it is not sure whether or not equivalent results or efforts have been committed. Buddhism site research has been recognized as a field of study in archaeology and the study area is overlapped with adjacent fields such as construction history and Buddhism art.

Studies about arrangement plan which is being studied in construction archaeology as a major field also agree that the collaboration is required between these two disciplines. It is because understanding on structures is required during investigation and result organizing process also the repairing and utilizing the ruins are necessary in the construction field.

However, it is not sure if there has been any collaboration efforts and both have not persuaded each other the needs for collaboration. It is something that the researchers need to put efforts on. Anyhow, the things that are required among principal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m site excavation process are organized in this study as a part of such efforts.

Key words : 불교고고학(buddhist archeology), 건축역사학(architectural history), 불교건축(buddhist architecture), 주망柱網(grid), 건물지(building site), 이주법移柱法(method of remove column), 감주법減柱法(method of omit column)